



KIA 윤영철

◀ KIA 윤영철 한화 문동주 ▶

누가 신인왕 될 상인가



한화 문동주



'신인왕 후보' 맞대결이 승자 없는 무승부로 끝났다. 챔피언스필드에서 KIA와 한화의 시즌 15차전이 펼쳐진 27일, 마운드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신인왕 후보' KIA 좌완 윤영철과 한화 우완 문동주가 첫 선발 맞대결에 나선 것이다. '드림의 미학'과 '특급 강속구'의 대결. 중압고를 즐엽하고 올 시즌 프로에 뛰어난 윤영철은 공이 빠르지 않지만 정교한 제구와 배짱투로 이날 경기 전까지 18경기에 나와 89이닝을 던지면서 4.15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5패를 기록했다. 광주 진흥고 시절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리며 화제를 모았던 문동주는 지난해 한화 유니폼을 입은 고졸 2년차. 프로 첫 시즌 28.2이닝을 소화하면서 '5년 이내 누적 30이닝'이라는 신인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윤영철과의 맞대결 전까지 21경기에 나온 문동주의 올 시즌 성적은 평균자책점 3.38, 8승 7패.

KIA 챔스필드서 펼쳐진 신인왕 후보 맞대결 승자 없이 무승부

문동주가 이날 싸움에서는 4회를 끝으로 물러난 윤영철에 앞섰지만, 역전을 허용하고 등판을 마무리하면서 웃지는 못했다. 윤영철이 1회 첫타자 문현빈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지만 김태연에게 던진 5구째 138km 직구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0-1이 됐다. 윤영철은 노시환과 채은성을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 세우면서 흔들리지 않고 1회를 마무리했다. 정교함이 무기인 윤영철이지만 2회 제구 난조로 고전했다. 윤영철이 선두타자 이진영과의 대결에서 헛스윙 2개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었지만 연달아 볼 4개를 던졌다. 윤영철이 최인호와 10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이를 잡으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진영에게 도루를 허용하면서 1사 2루가 됐다.

최재훈과의 승부에서도 다시 볼넷이 기록됐고, 중요한 순간 실책도 나왔다. 유로결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던 3루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으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윤영철이 신인왕이 아닌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이도훈과의 승부에서 1루 땅볼을 유도했고, 공을 잡은 변우혁이 흡으로 송구해 이진영을 잡았다. 이어 포수 한준수가 1루로 공을 보내 타자주까지 동시에 잡았다. 병살타로 2회 실점 위기를 넘긴 윤영철이 3회를 잘 마무리했지만 4회 시작도 볼넷이었다. 선두타자 이진영을 볼넷으로 내보낸 윤영철이 최인호의 번트 타구를 잡아 2루로 송구해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최재훈의 땅볼이 2루수 앞으로 향하면서 병살타로 이닝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2루수 김선빈의 포구 실책이 나왔고, 유

로결의 희생플라이로 0-2가 됐다. 윤영철은 이어 이도훈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문현빈을 2루 땅볼로 잡고 추가 실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투구수가 80개에 이르면서 윤영철의 등판이 4이닝 2피안타(1피홈런) 4볼넷 2실점(1자책점)으로 끝났다. 컨디션 난조와 내야 실책 2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최소 실점으로 4회를 버틴 윤영철. 4회말 야수들이 윤영철의 패전 가능성을 지워줬다. 3회까지 KIA 타자들이 최고 155km직구, 146km의 고속 슬라이더를 뿌린 문동주에 발이 묶였다. 나성범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는 등 문동주가 11개의 공으로 1회를 끝냈다. 최형우-소크라테스-김선빈을 상대한 2회에는 10개의 공만 필요했다. 3회에는 변우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는 등 8개의 공

으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웠다. 4회말 박찬호가 중견수 앞으로 공을 보내 팀의 첫 안타를 기록했다. 김도영은 볼넷을 골라내면서 무사 1-2루. 나성범이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최형우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가 됐다. 소크라테스의 타구가 문동주 앞으로 향하면서 홈에 들어오던 박찬호가 아웃됐지만, 이어진 2사 만루에서 김선빈이 좌전안타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장형식과 임기영으로 5-6회를 버틴 KIA가 6회 말 문동주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도영의 우전안타가 신호탄이었다. 나성범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 최형우가 좌중간을 가르면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4-2로 KIA가 역전에 성공하자, 한화가 마운드를 교체했다. 그리고 문동주의 책임주자 최형우가 대타 김태군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면서 문동주의 이날 성적은 5이닝(76구) 5피안타 2볼넷 4탈삼진 5실점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론토 선발 류현진이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시속 104km 커브로 시즌 3승

제구력·정신력 모두 '몬스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는 재 활에 한창이던 지난 겨울, 류현진(36·토론토 블루 제이스)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내 복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야구팬들과 재회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복귀 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여전히 '코리안 몬스터'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실점(2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류현진은 구속을 시속 104km까지 낮춘 커브와 날카롭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활용해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팀의 8-3 승리를 견인한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2.25다. 복귀 후 류현진 투구의 세부 성적을 보면 제구력 하나만큼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5경기에서 24이닝을 던진 류현진은 볼넷을 단 5개만 허용해 9이닝당 볼넷(BB/9) 1.88을 기록 중이다. 절묘한 볼 배합과 제구력을 앞세워 삼진은 20개를 잡아내 삼진/볼넷(K/BB) 비율은 4.00이다. 아직 표본(24이닝)이 적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도, 규정이닝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10위권 안팎의 BB/9와 K/BB 비율을 유지한다. 제구력이 좋다 보니, 강속구가 없어도 좀처럼 안타를 허용하지 않는다. 류현진의 이번 시즌 피안타율은 0.211, 이닝당 출루 허용(WHIP)은 1.00이다.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WHIP 최저는 조지 커비(시애틀 매리너스)로 1.03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이 복귀 후 얼마나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류현진은 토론토 수비진의 실책에도 무너지지 않고 곳곳하게 마운드를 지킨다. 이날 5회까지 솔로 홈런 2방으로 2점을 내주긴 했지만, 공 60개로 승리투수 요건을 채운 류현진은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콜 캐논에게 안타를 내준 뒤 호세 라미레스, 오스카 곤살레스에게 연달아 내야 땅볼을

유도했으나 각각 3루수 맷 채프먼과 유격수 산티아고 에스피날이 실책으로 주자를 살려줘 만루에 몰렸다. 이닝을 끝내고 복귀 후 첫 클리틱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3자책점 이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류현진은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야만 했다. 자칫하면 승리가 날아갈 뻔한 상황에서도 그는 씩 웃으며 마운드를 내려갔고, 더그아웃에서 평온한 미소와 함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다. 류현진은 최근 3경기 연속 수비 실책 때문에 점수를 허용했다. 이번 시즌 11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6점에 그친다. 보통 투수였다면 수비 실책 때문에 아르무너질 위기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투수답게 실점을 최소화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복귀 후 구속은 떨어졌어도, 제구력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을 앞세운 류현진은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매력적인 선발 투수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와 4년 동행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다. 지금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시즌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측면·중앙 자유자재...손흥민, 골 없어도 '최고'

토트넘 시즌 첫 연습 이끌어

원 측면과 최전방, 어디서 뛰어도 제 역할을 하며 토트넘(잉글랜드)의 새 시즌 첫 연습을 이끈 주장 손흥민이 7점대의 준수한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지난 26일(한국시간) 영국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라운드 AFC 본머스와 원정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라운드 경기(2-0)에 이어 개막 3경기 만에 벌써 연습을 신고했다. 영국 풋볼리던은 이날 경기 후 손흥민에게 평점 7을 줬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도 7.34의 평점을 매겼다. 공격포인트·유효슈팅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공격의 기점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더니 히사롤리송이 그라운드를 떠난 후반 15분부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변신해 본머스 수비진을 괴롭혔다. 풋볼리던은 "전반 본머스에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을 안겼다"며 "두 번째 골에 대해서도(손흥민은) 할 말이 있다. 데스티니 우도기를 보고 패스했고, 우도기가 데얀 콜루세브스키가 마무리를 도왔

다"고 해설했다. 최전방으로 이동한 직후인 후반 18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감각적인 2대1 패스로 우도기의 침투를 도운 장면을 언급한 것이다. 덕분에 수비수를 따돌린 우도기가 원발 킥백으로 중앙에 공을 배달해 콜루세브스키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다. 영국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84.6%를 기록했다.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키패스'를 네 번이나 보여줬다. 팀 내 최다다. 무엇보다 측면이 아닌 최전방에서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게 고무적이다. 주포였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떠난 후 토트넘을 지휘하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전방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히사롤리송이 떠나고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은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수비수와 경합하며 공을 지키고, 빠른 발로 뒷공간을 침투하는 등 제 역할을 해냈다. 손흥민이 벌여 놓은 공간을 측면에서 뛰어난 페리시치가 활용하며 슈팅까지 이어가는 등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연합뉴스



김수지 KLPGA 한화 클래식 우승 김수지가 27일 강원 춘천 제이드밸리스G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한화 클래식 2023' 파 이널 라운드에서 우승 후 트로피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